

Issue Comment

2018. 05. 16

NH 투자증권 005940

1Q18 실적 Review

보험/증권

Analysts 김고은
02-6098-6670
goenkim@meritz.co.kr

1Q18 당기순이익(지배) 1,281억원(+88.4% QoQ, +44.7% YoY)

1Q18 당기순이익(지배) 1,281억원(+88.4% QoQ, +44.7% YoY) 실현. 시장 거래대금 및 신용 증가로 인한 리테일 수익 증가가 실적 개선 원인. 최근 2차 평생 무료수수료 이벤트로 개설되는 신규 계좌는 일평균 500개 수준. 최근 리테일 신용한도가 대부분 소진되어 추가적인 배분에 대해서 내부적 논의 중. 추가 한도가 배분된다면 약 2~3천억원 가능한 수준. IB 실적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행어음 인가 시 시너지 가능성 높다고 판단. 특히 발행어음 관련 자금이 기업금융에 활용될 수 있어 내부 리테일 신용한도를 추가적으로 더 배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가능성 있음.

표1 NH투자증권 1Q18 실적 Review

(십억원)	1Q18	1Q17	(% YoY)	4Q17	(% QoQ)	컨센서스	(% diff.)	당사예상치	(% diff.)
순영업수익	372.4	313.4	18.8	245.1	51.9			317.0	17.5
영업이익	176.3	120.0	46.9	73.2	141.0	128.9	36.8	140.8	25.2
당기순이익	128.3	88.6	44.9	67.5	90.1	99.0	29.6	104.4	22.9
지배주주	128.1	88.6	44.7	68.0	88.4	105.0	22.0	104.4	22.7

자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NH투자증권 분기별 실적

(십억원)	2Q16	3Q16	4Q16	1Q17	2Q17	3Q17	4Q17	1Q18	% YoY	% QoQ
순영업수익	222.4	233.8	227.1	313.4	332.2	277.6	245.1	372.4	18.8	51.9
Brokerage	89.1	78.0	77.2	71.3	83.3	79.1	100.9	124.9	75.2	23.9
IB 수수료	24.2	10.5	40.2	38.9	41.3	19.1	11.0	23.4	-39.8	112.0
금융상품판매	7.9	7.9	7.4	8.6	8.9	10.2	9.0	12.3	43.7	36.2
자산관리수수료	7.4	7.5	6.1	6.4	7.3	6.9	7.6	7.6	17.8	0.0
기타수수료	29.2	38.4	64.3	45.1	45.7	45.0	33.8	45.0	-0.2	33.1
상품운용손익	-92.8	-53.4	-72.9	21.2	31.3	-2.5	-13.9	50.6	138.1	흑전
이자손익	156.1	155.8	143.3	149.9	149.7	146.9	136.6	148.7	-0.8	8.8
판매관리비	134.6	143.9	188.5	193.4	185.1	158.7	172.0	196.1	1.4	14.0
영업이익	87.9	89.8	38.6	120.0	147.1	119.0	73.2	176.3	46.9	141.0
영업외손익	-3.1	-4.7	11.0	-3.7	-3.7	-4.7	-4.5	-3.1	적지	적지
세전이익	84.8	85.1	49.6	116.3	143.3	114.3	68.6	173.1	48.8	152.4
법인세비용	17.6	17.4	12.3	27.8	36.4	27.6	1.1	44.8	61.5	3,902.9
당기순이익	67.2	67.8	37.2	88.6	106.9	86.7	67.5	128.3	44.9	90.1
지배주주	66.9	67.9	37.0	88.6	107.0	86.5	68.0	128.1	44.7	88.4

주: 상품운용손익에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외환거래손익, 배당금 및 분배금 포함

자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고은)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